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북한 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남 송 우*

차 례

- | | |
|----------------------------|-----------------------------|
| I. 열면서 | 2. 2000년 이후 연구 -내재적 접근에서 내재 |
| II. 북한 시문학 연구사 | 적-비판적 접근법으로 |
| 1. 2000년 이전 연구 - 전체주의적 접근에 | III. 닫으면서 |
| 서 내재적 접근으로 | |

I. 열면서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차적으로 남북관계의 현단계를 가늠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우리 문학 연구의 현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기도 한다. 사실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보이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왔다¹⁾. 이는 연구의 본질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박상천은 북한 문학 연구사의 흐름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1988년의 7.7 특별선언(월북문인의 대부분의 해금)을 계기로 해서 이전까지의 대립적 비판적 인식의 단계에서 객관적 실상 연구의 단계로 진전했다고 본다. 그리고 2000년 6.15 선언 전후에 이르러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와 통일문학, 민족문학 모색의 단계로 올라

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못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는 현실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온당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학의 연구가 너무 현실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연구의 유행성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가 하는 점은 한번쯤 되짚고 가야 할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민족문학연구의 측면에서 남북한 문학을 아우르는 연구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문학 연구는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남한 연구자들에 의한 북한 문학연구의 현황을 점검하는 일은 북한 문학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그 동안 연구결과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 것이 본고의 내용이다. 이는 북한 문학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보기 위한 방법적 모색의 일환이다. 그러나 검토 대상을 한꺼번에 다 수용하기 힘들어 일차적으로 시문학 연구로 제한을 했다.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는 일은 일종의 연구사이다. 연구사 점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이다. 관점은 바로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북한문학 연구사 점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내용은 연구방법이다. 북한문학 연구방법론을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학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지금의 북한문학 연구 단계는 미세한 문학연구방법론의 확인보다는 북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거시적인 북한연구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아직까지 북한문학 연구는 미시적인 방법론을 논의할 정도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온전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의 잣대는 북한연구 방법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북한 연구의 접근법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

섰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사적 시기구분은 정치적 사건이 북한 문학 연구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많은 문예지들이 이러한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문학에 대한 특집을 마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상천, 「북한문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0. 11, 156-165쪽 참조

를 점하고 있었던 접근법은 바로 전체주의 접근법이다. 이는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K. Brezezinski)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분석의 기본틀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일 먼저 등장하였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본질로 파악되었던 전체주의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에로까지 확대시킨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을 인류공동체의 절대선인 민주주의 대 절대악인 전체주의의 대결로 치환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스탈린식 전체주의 특성이 사회주의 일반의 모든 국가들에서 지배·관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접근법은 특히 역대 남한 정치권력의 전략적 이념과 결부된 냉전주의에 경도되어 철저한 반공주의 시각에서 북한사회 전체를 특징지어려는 기초를 띤다²⁾.

또 다른 하나의 접근방법은 내재적 연구방법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내재적 접근법은 송두율 교수가 1988년 《사회와 사상》 12월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제기했다. 내재적 연구의 권위자는 E. H. Carr이며, 내재적 접근이란 한 사회가 내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 즉 내적 작동논리를 잣대로 삼아 그 사회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조직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로 당연시되는 잣대로 사회주의 사회의 여러 현상을 평가하고 가늠한다면, 사회주의 사회의 역동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기발전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북한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일상화된 특수한 발전경로를 탐색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발전의 일반적인 측

2) 노동일, 김진향 「북한 연구방법론 고찰」,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평화연구』 제 23집, 1998, 91-92쪽.

면(보편성)과 특수한 측면(특수성)의 고려 속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결합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³⁾.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접근방법은 내재적-비판적 접근방법이다. 내재적-비판적 접근방법이란 이종석이 기존 내재적 접근법의 논리 위에 분명한 비판의 의미를 지우고자 붙인 이름이다. 내재적-비판적 접근이란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나 집단의 내재적 작동논리(이념)를 이해하고, 그것의 현실정합성과 이론·실천적 특질과 한계를 규명해 내려는 접근관점을 말한다. 이종석은 내재적 논리에 따라 안으로부터 이해하고 안으로부터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현상이든 일단 안으로부터 이해한 뒤에는 그 검토는 안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바깥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할 수도 있으며, 한 사회 혹은 이론에 대한 내재적 이해가 충분히 전제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검토는 내재적 정합성만이 아니라 바깥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이다. 한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종석은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실질적 무게와 의미를 인식론적 자세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즉 내재적-비판적 접근은 북한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을 동원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북한인식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북한연구의 방법론으로, 북한 시문학 연구의 흐름을 점검해보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가진다. 이 방법론 자체가 문학연구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되어온 북한문학 연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검토는 북한 시문학 연구의 사적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북한시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향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선택했다.

3) 같은 논문, 97-98쪽.

4) 같은 논문, 26-27쪽.

II. 북한 시문학 연구사

북한 시문학의 연구 상황을 개관해 보면, 기계적으로 구획하기는 힘들지만, 2000년대 이전의 연구 진행 상황과 이후의 상황은 상당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편의상 두 시기로 나누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2000년 이전 연구 - 전체주의적 접근에서 내재적 접근으로

북한시 연구 분야에서 첫 저술은 김대행의 『북한의 시가문학』⁵⁾(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이다. 이 책은 원래 통일원의 도움을 받아 기획된 것으로 <북한 시가문학의 몇 가지 특수성>, <북한의 문예정책과 시가>, <북한의 시가 창작>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후 <북한의 시가문학 연구>를 첨가하여 1990년에 다시 발간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질적인 북한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획으로 저술되었기에 북한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북한의 문학창작 방향은 당의 정책과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창작이 이러하므로 그를 뒷받침하는 문학이론이나 문학연구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임은 불문가지라는 입장에서 북한 시가문학을 살피는 순서를 북한의 문예정책과 시가에서 출발하고 있다⁶⁾. 그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문예정책과 시가>는 우선 김일성의 주체문예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적 특성, 사회주의사실주의, 군중예술론, 작가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작가·예술인에 대한 당의 영도원칙 등을 살피고 있다.

<북한의 시가 창작> 부분에서는 북한시의 장르별 유형을 송시, 가사, 정론시, 풍자시, 서사시, 서정서사시, 담시, 동요, 동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표현방법론의 양상은 운율을 중시하는 것이 북한시의 특징이며, 특히 북한

5) 이 책은 1990년에 『북한의 시가문학』(문학과 비평사)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고 후반부에 몇 편의 논문이 첨가되었다.

6)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문학과 비평사, 1990, 14쪽.

시의 시어의 요건(고유한 우리말일 것, 인민대중이 많이 쓰는 말일 것, 정확성과 명료성을 가질 것, 정치적 용어일 것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이 지향하는 주제를 찬양, 고무추동, 폭로로 나누어 시를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 <북한의 시가문학 연구>에서는 문학연구의 동향, 원전연구, 언어미학 연구, 작가연구, 작품연구, 문학사 기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연구현황을 개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시에 대한 논의는 북한시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논의들이나, 논의 대상들이 북한의 주체사상 이후의 텍스트들이라 북한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연구자가 “남북한의 문학을 한자리에 놓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상이 갖고 있는 거리는 실상대로 파악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바른 길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북한의 시가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정도의 전제를 가지고 작품을 대하거나 연구물을 대하는 것이 이해의 첩경을 찾는 태도일 것이기⁷⁾”라는 연구입장을 밝힘으로써 적극적인 통일지향적인 의지를 내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김재홍의 『북한시의 한 고찰』⁸⁾(『카프시인비평』, 서울대출판부, 1990)은 북한시의 탐색이 통일문학의 길을 열어가는 한 방법찾기의 출발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시를 평화적 건설시기부터 80년대 시에 이르기까지 개관하고 있는데, 특히 80년대 북한시와 이 시기 남한에서 왕성하게 쓰여진 계급해방론에 입각한 노동문학을 비교하고 공통 원형질을 밝혀낸 점은 남·북문학의 한 합치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⁹⁾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발표된 김재홍의 『해방 40년 남북한 시의 한 변모』(『한국 현대 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 1991)는 남북한 시단 형성과 시의 개념 논의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남북한 시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10년을 주기로 대응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시의 비교연구는 동질성의

7) 김대행, 같은책, 32쪽.

8) 이 글은 『북한의 인식』 시리즈로 간행된 『북한의 문학』(을유문화사, 1989)에 수록된 글이다. 발표연대로 보면 1989년이나 관점의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다른 통일지향적 문학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9) 홍용희, 「1950년대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 1993, 11-12쪽.

탐색을 통한 통일문학론 논의의 바탕이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해방기 시의 리얼리즘적 요소와 경향의 연구를 통해 북한 시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신범순의 『해방기 시의 리얼리즘 연구』(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이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북한 시의 연구는 아니지만, 해방공간에서 북한 시들이 지니는 리얼리즘의 성격을 단순한 반영론의 차원을 넘어 리얼리즘의 실천적 미학의 요소를 통해 해명하고 있어, 의미가 깊다. 이데올로기적 실천 개념이 안고 있는 결함을 비판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의미화 실천(signifying practice)과 과정적 주체의 개념¹⁰⁾을 가지고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주체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이 논문은 『햇불』, 『조국』, 『문학』에 실린 시들을 분석하여 당파성과 시적 개성 사이의 문제와 전위적인 이데올로기적 시계의 문제를 제시한다. 북한시들에 대한 이러한 리얼리즘 개념에 의한 비판적인 분석은 북한시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이 이후의 북한시 연구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 적합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북한 시 연구는 6.25 전쟁문학을 중심으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오현주의 『남북한의 6.25문학 비교』(《한길문학》, 1990년 7월호), 서경석의 『6.25 전쟁문학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역사비평》, 1990년 겨울호), 윤여탁의 『한국전쟁 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한국현대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사, 1991), 심원섭의 『1950년대 북한 시 개관』(『1950년대 남북한 문학』, 한국문학연구회편, 평민사, 1991), 한형구의 『1950년대의 한국시 -전쟁시 혹은 전후시의 전개』(문학사와 비평연구회, 도서출판 예하, 1991) 등이다. 이들 논의들이 6.25 전쟁 중 혹은 이후의 남북한 시들이 지니는 특징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지만, 이 중 한형구의 『1950년대의 한국시 -전쟁시 혹은 전후시의 전개』는 이후에 나타난 홍용희의 『1950년대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형구는 이 글에서 6.25 이후 남북 전쟁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1950-53 사이의 북한시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전쟁시를

10) 신범순, 『해방기 시의 리얼리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5쪽.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서 간행된 『해방후 10년간 조선문학』(조선작가 동맹출판사, 1995) 총서 중에서 엄호석이 집필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우리문학』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 이 책 중 제5장의 「전투적 구령 -시문학」부분을 텍스트로 해서 북한시의 유형과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의 경과 순서에 따르면서, 서술되어 있는 엄호석의 서술순서에 따라 북한 전쟁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투시> <애국시> <영웅시> 등의 개념에 값하는 소위 전투적 구령의 시들이 말만 앞세운 후방시인들의 관념적 열정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현장에 참가한 시인, 그리고 원래 전사로서 전투현장에서의 경험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민중시인 즉 이른바 전사시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인적 존재방식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들이라 함이 남한 시단의 존립방식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유의미한 사실의 하나로 지적될만 하다고 평가한다.¹¹⁾ 이러한 북한 전쟁시의 성격은 그야말로 인민성 개념에의 철저한 확립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생과 문학의 비분리, 지식인과 민중의 비분리라는 사회주의 사회의 특유한 무차별 원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시의 양식에 있어서는 단편서정시양식이 있는가 하면 한편 후방인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그린 장편서사시 양식 또한 이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 창작되고 있었으며, 민병균의 「어려리별」, 김순석의 「영웅의 땅」과 같은 작품들은 그러한 성과물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적한다. 이러한 장편 서사시의 문제성은 통일문학사의 궁극적 복원이라는 각도에서도 앞으로 이들 개별 작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통일지향적인 북한시 연구의 단초를 내보인다. 그러나 그의 북한의 전쟁시 연구는 엄호석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의 시각에 머물고 있다. 1950년대 남북한 전쟁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홍용희의 「1950년대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에 와서야 그 모습이 나타난다.

홍용희는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을 “분단극복의 의지와 통일문학 지향의 길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실마리가 6.25 전쟁 시기 남

11)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전쟁시 혹은 전후시의 전개」, 『1950년대 문학연구』, 문학과 비평연구회 편, 도서출판 예하, 68쪽.

·북한 문학의 성격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¹²⁾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의 인식은 북한시를 단순히 소개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선을 넘어서 있는 차원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연구의 필요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을 뺑뺑 대폰브의 ‘타자의 동일자화’(identity of the others) 개념에서 찾는다. 우리의 역사는 ‘타자의 동일자화’가 두 개의 이데올로기 체제의 대립과 투쟁 속에서 수행되어 왔는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좌우의 이념적 지향을 확고히 한 남북한이 표방한 문학은 ‘타자의 동일자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도적 담론기제로서 복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1950년대 전쟁시기 남·북한 시문학을 각각 ‘타자의 동일자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도적 담론기제의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조망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남한의 시는 전쟁기간에 발표된 시와 1950년대 전후시를 포괄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는 조국해방전쟁시기로 명명되는 전쟁기간 내에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남북한 시의 언어 이데올로기적 유형을 고찰하고 있는데, 남한시의 경우는 전쟁일반시, 반공의식의 고취시, 휴머니즘 계열의 시, 고전지향의 시, 모더니즘 계열의 시로 유형화 했다. 그리고 북한시의 경우는 반제반미시, 소·중공군에 대한 헌사시, 인민군 찬양시, 인민 영웅시, 김일성 우상화 시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6. 25 전쟁시기 북한의 시는 전쟁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통해 김일성 중심 체제의 북한식 사회주의가 규범적 사회임을 선동하고 주입하여 동일화 작업을 수행하는 공식담론기제라고 할 수 있다¹³⁾고 평가한다. 북한시의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한정된 지배담론의 구조는 사회체제가 이미 경직된 사물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시는 북한시의 사회적 기능의 일방적 절대화에 따른 맹목적인 단원주의와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방법적 다원주의의 면모를 보인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이후 추상적 무시간성의 공간에서 인간성 옹호와 생의 구경적 담구를 강조했던 순수문학론의 인식을 범주 안에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고 평가한다.¹⁴⁾ 즉 동준

12) 홍용희, 같은 논문, 4쪽.

13) 홍용희, 같은 논문, 78쪽.

14) 홍용희, 같은 논문, 78쪽.

상잔의 전쟁이라는 상징적 언어체계를 통해 북한의 합목적적인 단계에 입각한 전쟁이데올로기를 무화시키고 반공냉전구도를 고착화 시켜나간 지배체제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책략과 그 성격은 ‘타자의 동일자화’ 측면에서는 북한시의 경우와 동일선상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문학이 추상적 무시간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종의 도피문학이었다면, 북한문학은 정치적 이념의 일방적 흐름만 있을 뿐 사회적 계기들과 개인적인 계기들이 엮어내는 유기적 연관 속의 삶의 목소리가 결핍되어 있는 왜곡된 문학으로 본다. 문학의 본령이 제도화된 권력의 지배담론에 응전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언어를 구현하여 삶의 진정성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임을 염두할 때, 1950년대 우리문학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쟁문학은 산출되지 못한 것¹⁵⁾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이러한 남북한 시의 비교검토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분단문학의 원형성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지배이데올로기로 보인다. 그가 지향하는 통일지향의 문학이란 한 마디로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 시켜온 두 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탈지배이데올로기적 지향의 문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지배이데올로기적 지향의 문학담론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이다. 그런데도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를 통해 통일지향문학의 담론을 창출한 점은 북한시 연구사에 남겨지는 하나의 의미이다.

1995년에 이르면 집단적인 연구로서 조해옥의 『유일사상의 확립과 시적 형상화 주체의 변모』(최동호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와 운동제의 『도식성과 산문화 경향 극복을 위한 모색』(최동호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이 있다. 전자는 북한의 1960-1970년대의 시문학을 다룬 것이며, 후자는 1980-1995까지의 북한시를 개관한 내용이다. 조해옥의 『유일사상의 확립과 시적 형상화 주체의 변모』는 196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시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1967년 이전의 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원동력인 민중들의 형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후의 시는 김일성 찬양이라는 한 개인의 송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⁶⁾. 또한 이 시기에는 항일혁명 투

15) 홍용희, 같은 논문, 79쪽.

16) 조해옥, 『유일사상의 확립과 시적 형상화 주체의 변모』, 최동호 편 『남북한 현

쟁의 문학적 반영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며 미·일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작품과 남한의 4.19혁명을 소재로 한 시들도 소개하고 있다. 운동제의 『도식성과 산문화 경향 극복을 위한 모색』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북한시문학사의 전개과정을 개관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시에서 김일성에 대한 찬양, 혁명전통에 대한 계승,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노래하고 있는 점은 앞 시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으나,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본격화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이 시기의 북한 시에서는 도식성, 모방성, 유사성이 많이 사라지고 개성적인 운용창조의 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특정시기의 북한시의 특징과 변화를 개관해 주는 선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시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이다.

이인영의 『서정과 이념의 간극 -해방후 안용만 시 연구』(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는 안용만 한 시인의 개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방전 <생활 서정과 노동체험의 형상화>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과 해방후 <집단지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안용만 시작품의 성격을 해명하고 있다. 해방후 1950-60년대 북한에서의 그의 시작활동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는 당의 문예정책에 규율을 받아 공적 이념을 실현하고 있지만, 1956-1958년의 시기에는 개인적 서정의 단면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⁸⁾. 북한의 시인들이 당의 문예정책에 따라 그의 시세계가 변화하지만, 개별시인의 창작적 개성이 어떻게 작품 속에 내재할 수 있는지에 관심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시 연구에서 필요한 하나의 의미있는 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인 개인 연구가 북한 시문학사의 공식적인 틀에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되고 있다.

이지엽의 『한국전후시 연구』(태학사, 1997)는 전후 남북한의 시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그가 연구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분단문학을 바르게 보기와 열린 시

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299쪽.

17) 운동제, 『도식성과 산문화 경향극복을 위한 모색』,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441쪽.

18) 이인영, 『서정과 이념의 간극』,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 359쪽.

각으로 보기이다. 바르게 보기와 열린 시각으로 보기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일문학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미적 실현물로서의 작품을 객관 타당한 시각에서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공통된 문학적 자질을 이끌어내어 통일문학의 밑바탕을 밝혀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연구 방법론으로 치환해서 남북한 전후시의 특징을 분류하고 있다. 남한의 전후시는 크게 ①상황과 의지의 직서 ②저항과 휴머니즘의 회복 ③한의 정서와 전통성 계승 ④풍자와 역설 ⑤분단 비극인식과 극복의 차원으로 분석하였으며¹⁹⁾, 북한의 전후시는 ①전쟁의식 확산과 투쟁의식 ②경제복구와 노동력의 고취 ③찬가와 송가 ④조국통일과 분단의 형상화 ⑤민족 정서와 목가적 서정 ⑥비판과 풍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⁰⁾.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로 ①전쟁이 발발되고 계속 중인 전쟁시기의 시들은 남과 북이 똑같이 전쟁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직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점 ②휴전후 남북의 시문학 전개에서 그 특징적 면모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③외래사조에 대한 해석과 수용노력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풍자와 비판의 시들인 경우 남한은 당대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적극적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풍자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 ⑤분단인식의 극복에 관해 남·북한의 전후시는 통일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민족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²¹⁾. 그러나 이 연구는 남북한 시의 비교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모호하고, 방법론 역시 투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논한 선행연구인 홍용희의 「1950년대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에 대한 검토가 없어 이 연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 또 다른 공동연구가 이루어진다. 정유화의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성과 전개양상」(이명재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1998), 염철의 「1970-80년대의 북한 서정시 고찰」(이명재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1998), 류찬열의 「90년대의 북한시」(이명재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1998) 등이 그것이다. 정유화의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성

19) 이지엽, 『한국전후시 연구』, 태학사, 1997, 236쪽.

20) 이지엽, 같은 책, 237쪽.

21) 이지엽, 같은 책, 238-239쪽.

과 전개양상」은 60년대 북한의 전개양상을 전환기란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가 이 시기를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 60년대를 주체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와 함께 60년대 북한시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출현한다는 점, 그리고 시문학에 있어서 신·구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²²⁾.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체문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60년대에 전개되는 북한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비판적 점검대상은 1)60년대 북한 시문학의 이념적 주제, 2)송가시문학의 변모양상, 3)서정시에 드러난 개인적 상상력의 모습 등인데, 이념적 주제로는 ①사회주의 건설의 이념성 추구 ②당과 수령의 은덕 형상화 ③항일혁명투쟁과 혁명전통의 강조 ④남한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혁명의식을 드러내는 시작품을 각각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송가시문학의 변모 양상에서는 집체작으로 창작되는 송가서사시와 혁명사적비 헌시 및 송가 장시의 성격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정시에 드러나는 개인적 상상력의 모습을 몇 편의 시에서 분석해 내고 있다. 이러한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징은 그 시적 진실이 항일무장투쟁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창조적 역량보다 집단적인 역량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시적 허구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²³⁾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시문학을 폄하하거나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반외세에 대한 자주성의 구현, 분단비극의 체험을 우리의 언어로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 순수육망에 기초한 개인적 상상력이 은밀하게 구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시문학이 공유할 부분이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유점들이 어떻게 통일문학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염철의 「1970-80년대의 북한서정시의 고찰」은 1970-80년대의 주체적 시 창작 이론을 정리한 글이다. 그런데 그가 내세우는 접근의 방법론적 인식이 분명하다. 그는 “북한문학을 그 자체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내재적 관점,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조건을 추적하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함께 일정 정도 비판적

22) 정유화,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성과 전개양상』,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158쪽.

23) 정유화, 같은 논문, 189쪽.

관점을 요구한다²⁴⁾는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시문학연구에 대한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은 내재적 접근법이 지닐 수 있는 북한 편향적인 시각을 조금은 고쳐 세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주체적 시창작 이론에 나타나는 특징을, 장용남의 『서정과 시창작』에서 제시하는 바를 중심으로 1)시의 서정성, 2)시의 진실성, 3)시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유사성과 도식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 제안한 서정성의 고양과 시문학의 음악성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시문학에서 서정성의 고양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당성과 인민성의 원칙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시문학의 서정성 고양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²⁵⁾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 내재적 정합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북한시 연구를 위해 내세운 내재적-비판적 접근 시각이 온전하게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정시에 나타난 개성의 문제를 한 시인을 통해 다룬 글이 김재용의 『북한 사회와 서정시의 운명』(《시안》, 창간호, 1998)이다. 이 글에서 김재용은 김순석론을 통해 북한 시의 한 특징을 짚어내고 있다. 즉 북한의 문학사, 특히 서정시의 역사에서 보면, 개성과 개인취미 사이의 갈등은 꽤 오래된 것으로 양자가 서로 긴장을 유지한 채 북한시사가 전개되어 왔다는 것, 그런데 이런 긴장의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순석의 서정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재용은 우선 김순석의 시 『산향』을 통해 그의 서정시의 토대를 분석하고, 『마지막 오솔길』을 통해 그의 시가 지닌 서정시로서의 개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늦은 시월의 저무럼 한 때』, 『황소싸움』을 통해서도 시인이 관심한 북한 농촌사회의 근대의 과정을 읽어내고 있다. 북한 서정시에 나타나는 개성의 문제는 이미 다른 논자들에게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새로운 점은 아니지만, 한 시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성의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24) 엄철, 「1970-80년대의 북한의 서정시 고찰」, 이명재 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191쪽.

25) 엄철, 같은 논문, 211-212쪽.

그러나 이런 서정시에 나타나는 개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한 문학의 만남의 거점²⁶⁾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남겨진 과제이다.

류찬열의 「90년대의 북한 시」는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우선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 이전의 관주도의 북한문학 연구가 갖는 부르조아 편향과 그 이후의 극좌 편향을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연구관점을 내보인다. 이런 연구입장을 토대로 그의 관심은 북한의 90년대 서정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0년대 북한 시에서는 수령의 형상화에 있어서 그 대상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뀌고 있으며, 수령의 형상화에 따른 도식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령에 대한 형상화라는 원칙이 지속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쉽게 도식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⁷⁾. 그리고 안정기의 「락수물 소리」(《조선문학》, 93년 4월호), 문동식의 「바늘」(《조선문학》, 93년, 3월호) 등의 작품 분석을 통해 주제의 추상성을 일상적 서정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시적 감동에 이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작품이 90년대 북한시의 새로운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90년대 북한시의 특징 해명과 분석이 연구방법론에서 밝힌 편향성을 극복하고 있는 결과 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연구방법론의 자각에 결맞는 연구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북한시 연구 접근방법론의 토대가 김재용이 「북한문학은 후퇴하는가」(《한겨레 21》, 1996, 2, 14)에서 밝힌 민족문학과 국민문학의 행복한 일치를 구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전망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론적인 모색이 주체적으로 뒤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체문예이론과 관련하여 수령형상시를 분석한 연구가 송명희의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²⁸⁾이다. 수령형상시는 송가, 송시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김일성의 혁명과업에 대한 이상화를 내용으로 하고, 이를 주체문예이론을 통해

26) 김재용, 같은 책, 221쪽.

27) 류찬열, 「90년대 북한 시」, 이명재 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228쪽.

28)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호, 예림기획, 1999, 287쪽.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시인데, 송명희는 이러한 수령형상화시가 지닌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해명하고 있다. ①항일무장투쟁의 찬양②혁명과업 찬양과 남조선해방의 사명 ③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 등이다. ①항일무장투쟁의 찬양에서 논의되는 시편은 박세옥작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변홍영의 「백두산정에서」와 황명성의 「백두산의 눈보라」이다. 이 시편들을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과정의 위업을 찬양하고 있는 시로 해석하고 있다. ②혁명과업 찬양과 남조선해방의 사명을 구가하고 있는 시로는 김상오의 「나의 조국」, 정서촌의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김상훈의 「흙의 표제시」 등을 통해 김일성은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로 신격화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억압하에 놓인 남녘땅을 해방시킬 존재로 그리고 있다²⁹⁾고 본다. ③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를 노래하고 있는 시로는 김송남의 「인민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강일의 「빛나는 시간」, 김시권의 「나의 어머니당이어」, 리종섭의 「만경대여 길이 전하라」, 문동식의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고향에서」, 동기춘의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걷고 계십니다」, 최장수의 「약속」 등을 다루고 있는데, 김일성의 개인숭배 뿐만 아니라, 가게 나아가 김정일까지도 수령이자 동지로 추앙되고 있음을 시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형상시는 아버지 수령에 대한 인민의 효성과 충성이란 봉건적 담론을 기초로 한 김일성 특유의 카리스마와 성군 이미지를 형성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수령 당 인민의 혈연적 관계를 강조한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은 개인에 대한 숭배로부터 김일성 가게 전체의 혁명화와 우상화라는 방향으로 전면화되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은 물론이며,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³⁰⁾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형상시의 해명은 좀더 폭넓은 원전확보와 함께 주체문예시기 이후 수령형상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적인 고찰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00년 이전의 북한시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북한시에 대한 접근이 전체주의적 접근에서 내재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연구로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9) 송명희, 앞의 논문, 304쪽.

30) 송명희, 앞의 논문, 315쪽.

2. 2000년 이후 연구 -내재적 접근에서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으로

2000년대로 넘어오면,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북한 시문학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된다. 김재용의 「서정성과 산문화 사이에서」(『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는 8.15 이후부터 1989년까지의 북한시의 흐름의 특징을 비판적 시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가 북한시의 흐름을 개관하기 위해 나눈 시기는 ①해방과 전쟁 그리고 시적 실험들(1945-1953) ②시의 비판성과 길항작용(1953-1958) ③시의 다양화와 서사성의 강화(1959-1967) ④절대적 과거와 새 세대(1967-1980) ⑤생활의 재발견과 서정의 강화(1980-1989) 등으로 나누고 있다. 시사의 시대구분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있지만, 그가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한문학의 사적 전개를 <해방부터 유일사상 체계 확립까지>(1945- 1967)와 <유일사상체계 확립부터 현재까지>(1967-1993)로 이분화해서 논했던 것에 비하면 시사의 흐름은 1990년 이전까지를 다섯 시기로 상당히 세분화해서 다루고 있다. 북한시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그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각 시기마다에 나타나는 특징을 규명하는 것과 각 시기마다 등장하는 서사시의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다.

<1945-1953>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많은 신인들의 등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서사시의 특징은 일제하 항일운동을 다룬 조기천의 『백두산』의 계열과 당대현실을 배경으로 외세에 맞서 통일을 이루려는 조기천의 『생의 노래』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1953-1958> 시기에 나타나는 시의 특징은 문학의 비판성 강화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서사시는 민병균의 『조선의 노래』, 신상호의 『연대의 기수』, 김학연의 『소년빨치산 서강령』, 서만일의 『폭풍을 뚫고』 등 전쟁을 다루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54-1967> 시기의 시의 특징은 현실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과 서사시에서도 전관진의 『호르라 나의 강아』, 전동우의 『인간의 노래』, 이택의 『하나의 길 우에서』 등 당대현실을 다룬 서사시가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67-1980> 시기의 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수령형상 창조와 혁명전통을 다룬 시들이 나타나며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룬 시가 보인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1980-1989> 시기에 나타나는 시의 특징은 생활의 재발견과 당

대의 현실을 다루는 서사시가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나는 당대현실을 다루는 시는 60년대 등장한 당대현실을 다루는 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오영재의 『대동강』과 장건식의 『지평선』과 같이 이 시기의 서사시는 당대 현실 자체가 서사시의 배경이 되어버리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시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김재용이 지닌 관심의 하나는 북한문학이 지향해온 평양중심의 민주기치론을 비판적으로 해명하는 일³¹⁾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1980년대 북한 시를 논하는 부분에서 약간 언급될 뿐, 전체시사 정리의 흐름 속에 관통해 있지 못하다.

북한시사의 정리는 윤여탁의 『북한시사의 전개』(《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북한시사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³²⁾ 있기에 앞서 확인한 김재용의 『서정성과 산문화의 사이에서』에서 파악한 내용에 비하면 요약·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 시대에 국한해서 북한시의 특징을 해명하고 있는 글이 홍용희의 『김정일 시대와 북한 시의 동향』(《21세기문학》, 2000년 가을호)이다. 그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 시의 특징을 <김정일 동지에 대한 칭송>, <고난의 행군과 붉은 기사상>, <강성대국을 향한 도정>, <통일 시대로 향한 모색> 등으로 파악하고, 강성대국론과 함께 진행되는 개방정책과 아울러 1990년대 이래 강조된 자주성의 시대논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³³⁾ 하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 시의 특징을 소개하는 차원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북한의 서정시를 다룬 박승희의 『남북 화해와 북한의 서정시』(《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는 북한시의 전면을 장악하고 있는 서사적 성격, 서사시의 과다한 창작과 같은 북한 시창작의 현실 속에서 서정시의 본령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는데³⁴⁾, 그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서정시의 성격논의는 앞서 논의한 엄철의 『1970-80년대의 북한 서정시 고찰』과 김재용의 『북한 사회의 서정시의 운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락은 『북한시의 이론적 특성에

31) 김재용, 『서정성과 산문화 사이』,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203쪽.

32) 윤여탁, 『북한 시사의 전개』, 《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 145쪽.

33) 홍용희, 『김정일 시대와 북한 시의 동향』, 《21세기 문학》, 2000년 가을호, 91쪽.

34) 박승희, 『남북 화해와 북한의 서정시』, 《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 194쪽.

대하여」에서 박기훈이 엮은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의 내용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까지의 북한 서정시의 특징을 해명하고 있는데, 북한시에서 서정성은 시인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시에서 형식이나 시창작 기법은 최종적으로는 내용우선주의로 환원된다³⁵⁾는 것이다. 논의의 텍스트가 되었던 박기훈이 엮은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 내용을 좀더 비판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신범순의 「해방기 북한의 시단과 시인들의 활동」은 해방기의 북한시의 특성을 3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①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당문학 노선과 개성에 대한 논의 ②당의 노선에 대한 시적 복무와 긍정적 전형의 탐색 ③1946년 이후 북한 시의 낙관주의와 주관주의이다. 이들 논의를 통해 북한시가 어떻게 획일화 되어 나갔으며, 경직된 체제에 복무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³⁶⁾. 그런데 이 논의는 그의 학위논문인 「해방기 시의 리얼리즘」에서 논한 내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해방기 북한시 연구를 좀더 체계적으로 실현시킨 것이 우대식의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이다. 그는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해방 후부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그리고 1946년 이른바 민주개혁이 단행되어 사회모순을 제거하는 1947년 초까지의 기간, 마지막으로 민주기지론의 완성태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전쟁전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시문학론과 시적 현실 인식을 살피고 있다. 이런 시간의 순서에 따른 접근방법은 내재적 접근에 기초한 것으로 해방기 북한시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한 결과이다. 그가 이 시기의 북한시를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은 대중의 진솔하고 건강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점과 일제에 대한 투쟁의 양상을 왜곡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찬가와 대중성을 강조한 저급한 형식 그리고 무비판적인 소련에 대한 지향은 시문학의 양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³⁷⁾. 이러한 비판적 점검이 시가 지

35) 김용락, 「북한시의 이론적 특성에 대하여」, 《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 178쪽.

36) 신범순, 「해방기 북한의 시단과 시인들의 활동」, 《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 192쪽.

37)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 아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40쪽.

닌 미학적 접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 와서 집단적인 연구는 김종회편 『북한문학의 이해 2』와 목원대 국어교육학과 편 『북한문학의 이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북한 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홍용희의 『해방 이후 북한시의 역사적 고찰』, 박주택의 『북한 산수시의 전개양상 -1990년대 시를 중심으로』, 고봉준의 『남북한 시문학의 접점과 근대문학』, 이성천의 『박세영 시를 통해 본 북한 시의 변모과정』, 강정구의 『주체의 역사에 대한 충실한 기록 -정서촌의 시집 『날이 밝는다』를 중심으로』, 김수이의 『주체조국 건설의 선봉에 선 계관시인 -오영재론』, 오성호의 『북한시의 형성과 전개』 등이 그것이다.

홍용희의 『해방 이후 북한시의 역사적 고찰』은 북한에서 간행된 문예이론서와 문학사 그리고 《조선문학》, 《청년문학》을 토대로 해방이후 북한시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문학에 대한 고찰은 남북한의 문학적 이질성의 배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그 극복의 방안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실제 이 글이 그러한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논자가 제시하고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문학이 지닌 동질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문학논의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글은 북한시를 개관하는 선에서 기획된 결과로 보여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북한 시의 흐름을 장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글이 오성호의 『북한시의 형성과 전개』이다. 이 글은 북한 시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송가, 서사시, 서정시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송가는 김일성이 해방과 새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함으로써 민중들의 잠재의식 속에 간직되어 있던 민중적 메시야에 대한 꿈을 일깨우는 한편 김일성이 바로 메시야임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시는 송가의 김일성이 어떻게 해방과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다. 서정시는 국가와 인민에 대한 의무의 자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증산의 열의를 부추기기 위해 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가와 서사시와 서정시들은 북한 시가 전개되어나갈 방향과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38) 홍용희, 『해방이후 북한 시의 역사적 고찰』, 김종회편 『북한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27쪽.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의 북한시는 초기의 송가, 서사시, 서정시가 말한 것을 각각의 시대가 제기하는 과제에 비추어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북한체제의 형성, 유지,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³⁹⁾. 이러한 연구는 북한 시의 장르적 연구라는 점에서 시연구의 본격연구에 다가서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남한 시의 장르적 특성과의 비교고찰을 통한 통합접점의 모색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박주택의 『북한 산수시의 전개양상 -1990년대 시를 중심으로』는 북한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산수시를 분석해보고 있는 글이다. 북한의 산수시는 소박한 풍경묘사에 그칠 뿐 자연의 이치나 예지를 심도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⁴⁰⁾고 본다. 그것은 북한 문예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한의 정서적 유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정 소재 중심의 논의는 의미를 지니나, 남한의 산수시와의 비교검토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봉준의 『남북한 시문학의 접점과 근대문학』은 정지용과 백석의 시가 지닌 민족이라는 공통 관념에 의해 남과 북의 이념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⁴¹⁾. 이들 작품이 보여주는 민족적 정서와 형식이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민족적 동질성이 다른 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성천의 『박세영 시를 통해 본 북한 시의 변모과정』, 강정구의 『주체의 역사에 대한 충실한 기록 -정서촌의 시집 『날이 밝는다』를 중심으로』, 김수이의 『주체조국 건설의 선봉에 선 계관시인 -오영재론』은 박세영, 정서촌, 오영재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룬 시인론이라는 점에서 북한 시 연구의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아직은 자료의 미비와 비판적 거리의 미확보로 북한

39) 오성호, 『북한시의 형성과 전개』,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83쪽.

40) 박주택, 『북한 산수시의 전개 양상』,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175쪽.

41) 고봉준, 『남북한 시문학의 접점과 근대문학』,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188쪽.

시의 내재적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좁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 조선족 연구가인 선우상열에 의해 이루어진 『광복후 북한현대문학 연구』(열락, 2002)는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개관적인 접근이란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자료가 보인다. <수령형상 창조문학 연구>라는 제1편 중에서 시문학부분에서 선우상열은 수령형상시의 전개양상을 북한문학의 일반적인 시기구분에 의거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 시기를 ①1925 - 1945.8(항일무장투쟁시기) ②1945년 8월 - 1950년 6월(해방공간) ③1950.6 - 1953.7(6·25동란시기) ④1953.8 - 1959년(전후북구건설 및 사회주의 개조시기) ⑤1960년대(주체사상확립준비시기) ⑥1970년대(주체사상확립시기) ⑦1980년대(주체사상고양시기) ⑧1990년대(우리식 사회주의시기)로 나누어 수령형상시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①1925 - 1945.8(항일무장투쟁시기)에서는 수령형상문학의 첫 송가인 김혁의 『조선의 별』(1928)을, ②1945년 8월 - 1950년 6월(해방공간)에서는 북조선예술총연맹에서 펴낸 『우리의 태양』(1946)과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1948)을 중심으로 논하면서, 해방후 『백두산』과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김일성송가의 쌍벽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③1950.6 - 1953.7(6·25동란시기)에는 전시송가작품이 대량생산된 시기로 전시송가는 헌시와 송가적 서정시라는 두 형식으로 창작되었다고 본다. 헌시는 백인준의 『크나큰 그 이름 불러』(1952)가 대표적인 작품이며, 송가적 서정시는 안룡만의 『수령님의 이름과 함께』(1951)처럼 현명한 리더쉽과 업적을 노래한 것과 이택의 『장군님께서 오신 마을』(1951)처럼 인간성을 노래한 것, 김복원의 『우리의 최고 사령관』(1950)처럼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④1953.8 - 1959년(전후북구건설 및 사회주의 개조시기)에는 원중소의 가사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1956)에 주목하고 있다. ⑤1960년대(주체사상확립준비시기)에는 서정시, 서사시 등이 꾸준히 창작되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을 칭송하는 일군의 장시들이 창작되며, 특히 송가가사가 대량 창작된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⑥1970년대(주체사상확립시기)에는 김일성송가 작품들을 실은 서정시집, 서사시집 및 종합시집들이 대량출판된 시기로 파악한다. 대표적인 서정시집으로 『인민은 노래한다』(1970), 『당의 기치따라』(1970)

등, 서사시집은 『수령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1971), 『불멸의 자욱』(1973)등, 종합시집으로는 『만경대는 우리의 심장』(1971),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1972) 등이 논의대상이 되고 있으며, 1970년대에 들어 김정일에 대한 송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잔금옥의 가사 「이 세상 멀고먼 곳 가면 갈수록」(1970)을 통해 논하고 있다. ⑦1980년대(주체사상고양시기)에는 수령송가 서정시, 서사시가 활발히 창작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새벽」을 필두로 서정서사시가 창작되었고,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한층 확고해지면서 김일성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됨을 김철의 「백두의 새날」(1982), 김경기의 「백두산에 오르시어」(1983)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⑧1990년대(우리식 사회주의시기)에서는 김일성의 서기기념 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영원하라 동지애의 역사여」 등에서 김일성을 노래하면서도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충효 및 김일성 그대로인 동지애를 곁들여 노래함으로써⁴²⁾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가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선우상열의 수령형상시에 대한 정리는 북한 수령형상문학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나, 비판적 거리를 지니지 못해 그 한계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숙의 『북한현대시사』(태학사, 2004)는 북한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다. 북한 시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장르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시에 대한 장르적 접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서사시와 서정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다룬 북한의 시가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라는 시기적인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가 지금까지의 북한 시 연구가 지닌 도식주의적인 측면을 극복해보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의도의 실천의 하나로 그는 기존의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시기구분을 제안한다. 그가 제시하는 시대구분은 ①제1시기 : 1945-1949년 ②제2시기 : 1949 -1953 ③제3시기 : 1953- 1955년 ④제4시기 : 1956- 1958년 ⑤1958년 이후이다. 여기서 기존의 시대구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2시기와 제4시기이다. 보통 1950년을 기점으로 제2시기를 구분해 왔는데, 전쟁발발이라는 역사적 시기를 문학에 단선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작가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현실

42) 선우상열, 『광복 후 북한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77쪽.

감각을 드러내주는 부분으로 시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4시기도 1953년과 1958년 사이에 1955년 혹은 1956년이라는 또 하나의 마디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문학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분이다. 새로 설정된 이 시기는 사상성에 대한 강조와 작가들의 예술성에 대한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극도의 긴장관계를 형성한 시점이기에 따로 한 시기를 획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당의 문예정책과 작가들의 창작욕구를 일방통행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봄으로써 북한문학사를 보다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⁴³⁾. 이는 바로 북한시에 대한 접근을 내재적 접근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 거리를 가짐으로써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서사시를 분석한 틀은 ①서사시의 형태 ②화자와 서사적 주인공의 관계 ③인물의 행동 유형과 신본적 유형 ④서사구조의 전개양상 ⑤서사시의 주제 등이다. 이 틀을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다섯 시기에 따라 북한의 서사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변모해 나갔는지를 살피고 있다. 제1시기에는 조기천의 「백두산」을, 제2시기에는 단편서사시인 김학연의 「독로강 기슭에서」와 김북원의 「락동강」을, 제3시기에는 대하 장편서사시인 민병균의 「조선의 노래」를, 제4시기에는 서정서사시인 이용악의 「평남 관개 시초」를, 제5시기에는 서정서사시인 손승태의 「불타는 용해강」을 각각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서정시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①서정시의 형태 ②시적 형상화의 대상 ③주제의 형상화 방식 ④정서적 동일화의 방식 등으로 나누어 다섯 시기의 서정시를 각각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시의 분석은 북한 시를 장르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자가 의도한 당의 문예정책과 작가들의 창작욕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실제 시 분석에서 확연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시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다양화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북한시 텍스트에 대한 시선이 단순히 내재적인 입장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려는 연구입장에서 서 있다는

43) 김경숙, 『북한현대사』, 태학사, 2004, 36쪽.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남한 시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접점의 모색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로운 텍스트를 다루는 경우는 내재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Ⅲ. 닫으면서

지금까지 남한에서의 북한시 연구사를 개관해 보았다. 연구 자료를 시대순서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정리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한 점은 북한시문학 연구에 대한 관점의 변모 양상이었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전체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법, 그리고 내재적 - 비판적 접근법, 비교사회주의적 접근법으로의 진전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들은 북한 시에 대한 이해나 소개차원에서,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분석하기, 남북한 시의 비교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북한문학을 민족문학으로, 나아가 통일문학 혹은 통합문학의 한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시문학 연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재적 접근에 의한 연구와 내재적 - 비판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혼재하고 있다. 이는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북한시에 대한 자료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북한문학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북한시 연구가 진전되면서, 북한 시인의 작품론과 작가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북한 시문학사를 새로 쓰기에는 아직 역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북한 시문학 연구 대상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반증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 의해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말이다.

주제어 : 북한시, 전체주의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내재적-비판적 접근법, 주체시대의 문예이론, 통일문학,

참고문헌

-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17쪽, 20쪽, 36쪽.
- 김대행, 『북한의 시가 문학』, 문학과 비평사, 1990, 14쪽, 32쪽.
- 김성수, 『통일의 문학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41쪽.
- 김용락, 「북한시의 이론적 특성에 대하여」, 《시와반시》, 2000년 겨울, 178쪽.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5, 60쪽, 150쪽.
- _____, 『한국현대 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404쪽.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160쪽.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23쪽, 203쪽.
- 김재홍, 『카프시인비평』, 서울대출판부, 1990, 231-288쪽.
- 김중회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2002, 27쪽, 175쪽, 188쪽.
- 노동일·김진향, 「북한연구방법론 고찰」, 경북대 평화문제 연구소, 『평화연구』 23집, 1998, 91-92쪽, 97-98쪽.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177쪽.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83쪽.
- 민족문학사연구소 지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 1991, 9쪽.
- 박승희, 「남북 화해와 북한의 서정시」, 《시와 반시》, 2000년 겨울호, 194쪽.
- 선우상열, 『광복후 북한 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77쪽.
-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 1999, 287쪽, 304쪽, 315쪽.
- 신범순, 「해방기 시의 리얼리즘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5쪽.
- _____, 「해방기 북한 시단과 시인들의 활동」, 《시와 반시》, 2000년 겨울, 192쪽.
-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6쪽.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5쪽.
-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윤여탁, 「북한시사의 전개」, 《시와 반시》, 2000년 겨울, 145쪽.

- 이명재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1998, 189쪽, 191쪽, 158쪽, 228쪽.
- 이인영, 「서정과 이념의 간극」, 『1950년대 남북한 시인연구』, 국학자료원, 1996, 359쪽.
- 이지엽, 『한국전후시 연구』, 태학사, 1997, 236쪽, 237쪽, 238-239쪽.
- 최동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사, 1995, 229쪽, 441쪽.
-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전쟁시 혹은 전후시의 전개」,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68쪽.
- 홍용희, 「1950년대 남북한시의 비교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1993, 4쪽, 11-12쪽, 78쪽.
- _____, 「김정일 시대와 북한시의 동향」, 《21세기 문학》, 2000년 가을호, 91쪽.

<Abstract>

The Present Position of the Research and
Task of North Korean Literature
- With the Research of North Korean Poetry as
Central Figure

Nam, Song—Woo

This thesis is about the present position of research of North Korean Poetry. It put much importance on the aspect of transfiguration of a point of view of the research of North Korean Literature. It can be named as the progress from the totalitarian through the immanent and the immanent-critical, to the comparative social aspect. These aspects were appeared as the comprehension and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poetry, the analysis of it with critical distance,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poetry. This change of standpoint was possible since North Korean Literature were regarded as a national literature and further more as unification literature or integration literature of both nations.

Despite of transformation of the aspect, however, there has been yet the mixed loading of studies in the immanent and the immanent-critical approaches. This implies that there are still lots of documents of North Korean poetry yet to be introduced as they are. This is the task of which has to be solved thoroughly. Nevertheless there is the progress of research of North Korean poetry and the emergence of the treatise of works and writers of North Korean, it is still in need to write newly about the history of North Korean poetry on these basis. It produces not only contrary evidence of the plentiful existence of objects of research of North Korean poetry but also the tasks of research of them in various points of view.

Key Words : North Korean poetry, totalitarian approach, immanent approach, immanent-critical approach, the theory of literary art in totalitarian period, unification literature